

‘제3회 시민의 날’ 축제의 현장

지난 18일 개최된 제3회 시민의 날 행사 현장을 찾아 현장을 사진으로 기록한다. 이번 제3회 시민의 날 행사는 식전행사, 기념식, 체육·문화행사, 빅콘서트, 불꽃놀이, 부대행사 등으로 진행됐다. <편집자주> 사진·글 지혁배 기자 94spice@hanmail.net



포천시 문화상 시상 제3회 포천시 문화상 시상식이 지난 18일 제3회 포천시민의 날 기념식장에서 개최됐다. (사진은 박운중 세무회계 사무소가 제공한 것으로, 최광규 포천시청 역도부 감독에게 문화상을 시상하고 있다.)



기념식 참석 제3회 시민의 날 기념식에는 1만5천여명의 시민이 참석해 시민의 날을 자축했다.



외국인과 함께 울·면·동 입장식에서는 외국인 근로자들이 함께 입장해 눈길을 끌었다.



그네뛰기 한 시민이 끈에 한복을 차려입고 문화행사로 마련된 그네뛰기를 하고 있다.



빅콘서트 빅콘서트는 모스틀리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협연으로 성악가와 인기가수 등이 출연했다.



게이트볼 체육행사로 실시된 게이트볼 대회에 참가한 노인들이 경기에 열중하고 있다.



씨름대회 씨름대회에 참가한 선수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다.



배구대회 체육행사로 실시된 배구 대회에 참가한 선수들이 승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탐방 3

포천시청 직장운동부 태권도부
 임영선 감독

엘리트태권도육성 통해 토종 실업팀 만들자

포천시청 직장운동경기부인 태권도부는 2003년 8월 1일 창단된 팀으로 포천시 3번째 실업팀이다.
 초·중·고 엘리트 육성의 기반이 갖춰진 상태에서 실업팀 육성을 통해 포천이 태권도의 메카로서 자리매김 하기 위한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창단된 태권도부는 지역 엘리트 기반의 인프라를 구축해 토종선수를 육성을 최종목표로 매진하고 있다.
 태권도부는 임영선(49) 명예감독을 위시해 김실용(31) 코치, 이원영(23)·최희중(24)·이종호(23)·강병진(20)·오인식(25) 선수로 김 코치의 경우 2003년 1월 1일 위촉됐고, 임영선 명예감독과 선수들은 올 1월 1일부터 팀에 합류했다.
 임영선 명예감독은 과거 러시아 문호가 개방되면서 러시아에 태권도를 보급해, 러시아에서는 마스터 임으로 불리고 있으며, 10여년 전 영북종합고등학교 전국을 제패할 당시 감독으로 재직하기도 했다.
 임 감독은 현재 경동대학교 교수로 재직중이며 영북태권도장을 운영하고 있다.
 최근 각종대회에서 입상한 선수들의 수상 현황은 ▶이원영(헤비급) 제85회 전국체육대회 은1 ▶강병진(라이트급) 제85회 전국체육대회 동1 ▶오인식(플라이급) 제85회 전국체육대회 도대표 ▶최희중(마들급) 제85회 전국체육대회 동1 ▶이종호(핀급) 제40회 대통령기 전국태권도대회 은1 의 성적을 거두었다.
 임영선 명예감독으로부터 포천시청 직장운동경기부인 태권도부의 현황과 발전상을 들었다. 임 감독은 “태권도는 한지역에서 육성 가능한 종목”이라며 “초·중·고, 실업팀의 기반이 갖춰진 태권도는 여건이 아주 좋은 편이어서 5년 안에 괄목할 만한 성적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중국에는 포천에 고향을 포천에 둔

선수들이 포천에서 육성돼 포천시 실업팀에서 활약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같은 인프라를 완성하기 위해 임 감독은 현재 대진대학교와 경북대학교 협의 사회체육학과 설립을 통한 대학팀 구성을 협의하고 있으며, 이미 영북중고와 일동중고, 갈월중학교에 태권도부가 창설돼 있어 기반은 조성돼 있다.
 임 감독은 “태권도는 ‘도(道)’를 기본 덕목으로 삼고 있는 운동이기 때문에 감독, 코치, 선수들의 삼위일체가 중요하다”며 “현재 관내 여러 지역에 흩어져 있는 태권도부를 한 곳에 유지해 초·중·고 엘리트선수를 육성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포천시 실업팀 발전을 위해 바람직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영북면에서는 이미 태권도의 토종화를 위해 영북초등학교에 특기적성반을 개설해 태권도를 보급하고 있다.
 아직 걸음마 단계에 있는 태권도부지만 초기부터 행정적, 인적, 경제적 지원이 병행되어야 발전을 바라볼 수 있는 만큼 시청의 각별한 관심과 배려를 주장하는 임 감독.
 현재 태권도부의 경우 감독은 무보수 명예직, 코치는 6급 상당, 선수는 7~8급 상당의 대우를 받고 있다.
 임 감독은 “최근 경향을 보면 전국적으로 시·군 선수 영입시 일정한 스카우트비용을 들여서까지 우수선수를 영입하려고 하는데 포천시는 그런 면에서는 미흡한 것이 사실”이라며 “토종선수가 육성된다면 스카우트 부분도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며, 시의 부담도 덜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강조했다.
 한편 임 감독은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계획 수립을 통해 엘리트 체육이 발전”되길 바라며 “체육업무를 담당하는 분야의 공무원들 또한 전문가로 양성해 장기적인 발전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지혁배 기자 94spice@hanmail.net



김실용 코치



최희중 선수



포천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이종호, 강병진, 임영선 감독, 오인식, 이원영 선수(좌부터).

안전한 전기사용은 여러분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합니다



◆ 변압기 절연유 실험

“전기안전은 믿음과 신뢰를 주는 경기북부전기안전관리공사에서 책임지겠습니다”

특급 전기점검 기술자 다수 확보

최첨단 전기점검 측정장비 보유

신속하고 철저한 서비스 보장



대표이사 안병호

전기신규신청과 전기 신·증설 공사 및 각종 대관업무 상담은 당사로 문의하세요



◆ 변압기 부하 점검